

익산 원도심 일대 젊은 도심 탈바꿈

특화거리 '문화이리로' 조성... 어울림플랫폼·주민편의시설 건립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낙후된 원도심 일대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발굴하는 등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심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중심시가지지형'에 중앙동 일대가 선정돼 익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원도심 중심거리인 익산역 앞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까지 '문화이리로'라는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총 3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되는 특화거리의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며 '빛 만남의 길'이라는 주제로 익산역의 과거와 미래를 빛으로 표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관 조형물과 탄생석을 모티브로 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본계획 구상이 마무리됐고 올 하반기에 공사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다.

시는 빈 건물로 방치됐던 옛 하노바호텔을 매입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곳은 창업과 일자리, 문화예술까지 아우르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이나 문화예술 전시 공간,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설계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원도심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담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도시재생대학원 주민전문가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1기 수료식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종 10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사업은 보완과정을 거쳐 후속 연계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을 운영 중인 군산시가 여름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군산시 '나도 혼자 산다' 여름캠프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수강생 등 50여명 참여

전국 최초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을 운영 중인 군산시가 여름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은 상반기 교육과정을 마치며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간 종합반 수강생과 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나도 혼자 산다' 여름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함께 걸어요 청양산 산행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텐트사용법 교육과 야외 바베큐 체험 등 실제 캠핑을 체험하는 "나도 혼자 산다" 프로그램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 및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또 고마워요 나의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역할을 만들

며 항상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여름캠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은 여름캠프를 끝으로 오는 9월까지 일주일간 여름방학으로 오는 10일부터 2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종합반은 직업준비, 난타, 바리스타프로그램이 신설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별반은 직업훈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컴퓨터, 공예, 문화해설사, 난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화합과 상생,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읍면동 자매결연 체결 등 3가지 안건 채택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와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군이 화합과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8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군산-서천 행정협의회를 열고 읍면동 자매결연 체결 등 총 3가지 안건을 채택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된 안건 내용으로는 양 지자체 소속 읍면동간 상호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 도모,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

치 공동 추진,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동 추진, 총 3건의 안건을 협의, 채택했다.

또한 이날 행정협의회 개최를 기념해 군산시청 청사 로비에서 서천군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전시 판매 행사를 펼쳐 양 시군의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행정협의회를 통해 양 시군의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활동이 활

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안건을 발굴하고 논의해 양 시군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015년부터 재개된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력과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며, 동백대교 명칭 공동 선정, 금강역사영화제 공동개최, 유료시설 상호 감면 등 총 27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양 시군의 우호증진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타 시군 전입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교환

군산시가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온 지역민들의 기존 종량제 쓰레기봉투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

시 자원순환과(과장 진희병)는 규제 해소 차원에서 1일부터 타 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사용하다 남은 '타 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군산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교환은 제219회 군산시 의회 정례회에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타 시군에서 군산시로 이사 온 연간 4200여세대의 전입가구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청 육상부, 잇단 메달행진

전국육상선수권대회서 금·은메달 획득

익산시청 육상부 선수들이 메달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김영빈 선수가 금메달 1개, 정다운 선수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상민 선수가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연속 달성한 쾌거이다.

김영빈 선수(21)는 남자 멀리뛰기에서 7m 58cm로 금메달을, 정다운 선수(21세)는 여자 헤머던지기에서

55m 26cm로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익산시청 육상팀은 지난해 여러 선수들의 부상으로 침체를 겪었으나 올해부터 국제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영빈 선수는 무릎 부상 이후 꾸준한 재활 훈련으로 재기를 노린 결과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의 결실을 맺었다.

정다운 선수는 올해 국내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작년에 이어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대응 긴급회의

군산시보건소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관련 부서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안전총괄과 등 유관부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대응 방안을 위해 긴급회의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는 재난, 산림, 농업, 방역, 방문보건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특성과 임상증상, 예방관리에 대

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관내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군산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예방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 및 농업용 토시 지급,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역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월명공원 외 32개소에 현수막 설치와 월명체육관 외 6개소 전광판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교육, 카카오프러스친구 SNS를 통해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진드기매개감염병 'SFTS' 총력 대응

익산시, 전광판 홍보·예방수칙 교육 등

익산시가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8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읍·면·동 통·이장회의와 각종 행사장, 경로당 등을 방문해 SFTS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에 동영상 홍보, 등산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공서에 리플렛과 기피제를 배부했으며 읍·면·동 빈집과 유흥지, 공터 등을 대상으로 풀베기를 진행하는 등 생활환경을 정비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1~3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설사·식욕부진 등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예방백신과 표적치료가 없어 농작업 시 곤과 장화 등을 입어야 하며 야외활동 시 돗자리를 사용하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풀숲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충남에서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 전국 SFTS 감염자가 33명이며 도내에서는 7명(시방자 1명)으로 점차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